

친환경차의 힘...7월 車수출액 5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친환경차 수출량 5만대 첫 돌파 19개월 연속 성장세 하이브리드차 60.9%, 전기·수소차 68.4% ↑ 최고치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량이 처음으로 5만대를 넘어서면서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 다만 내수는 수입차 판매량이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 생산량은 반도체 공급난 완화로 소폭 늘었다.

◇7월 자동차 수출액 51억4000만 달러...월 수출액 사상 최고치=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3% 증가한 51

4000만 달러(6조7128억원)에 달했다. 월 수출액이 50억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이 처음으로, 2014년 12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세운 최고 기록이다.

이는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 중 친환경차 비중은 28.6%로 작년 동월 대비 6.4%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35.7%)와 유럽연합(EU·4.0%) 등 주요 수출 시장뿐 아니라 아시아(84.4%), 중남미(14.1%), 중동(4.8%)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수출도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량은 22만3633대로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월 수출량이 20만대를 넘어선 것은 2020년 3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선적 지연된 물량이 이월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완성차 5개사 모두 작년 동월 대비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수출 5만대 첫 돌파...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두 배로=7월 친환경차 수출 물량은 작년 동월 대비 60.1% 증가한 5만4222대, 금액은 50.6% 늘어난 14억7000만 달러로 모두 1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친환경차 월 수출량이 5만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달이 처음이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면서 각각 3만대와 2만대 선을 돌파했다.

수출액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어 이후 11개월 연속 10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액(6억7000만 달러)은 작년보다 60.9%, 전기·수소차 수출액(7억3000만 달러)은 68.4% 증가해 각각 3개월과 7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 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6.8% 증가한 3만7735대로 역대 7월 중 최대였다.

연료별로 보면 전기차(1만4708대)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며 월 기준 역대 최대 내수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2만1552대)와 수

소차(573대)는 각각 4.6%와 16.9% 늘었다.

1~7월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31만4000대로 30만대를 돌파했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140만대)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5.6%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국산차는 43.6% 증가한 2만9668대였고 수입차는 11.3% 감소한 8067대였다.

특히 국산 전기차(1만3112대)는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두 달 만에 최다 판매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수입차의 경우 전기차는 작년보다 260.3% 늘었지만 하이브리드차(-23.1%)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36.0%)는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연합뉴스



메르세데스-EQ 포뮬러 E 팀, 월드챔피언십 우승

메르세데스-EQ 포뮬러 E팀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잠시 중립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ABB 국제자동차연맹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의 시즌 마지막 경기 서울 E-프리(E-Prix)에서 2년 연속 드라이버 및 팀 부문 더블 월드 챔피언십을 확정했다. 드라이버 스토펠 반도르이 주행하는 '메르세데스-EQ 실버 애로우 02'가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현대차그룹,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총력...AI 역량 강화

美에 로봇 AI 연구소 설립...차세대 로봇 구원 기술력 확보 국내에 글로벌 SW센터...SDV 개발 체계 조기 구축 목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신사업의 핵심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한다. 또 미래차 시대 소프트웨어(SW)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 글로벌 SW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로봇 AI 연구소를 설립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3개사는 지난 12일 연구소에 총 4억 2400만달러(5516억원)를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인수한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연구소 소수 자본에 투자한다.

로봇 AI 연구소의 법인명으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AI 인스티튜트'(Boston Dynamics AI Institute)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마크 레이버트가 연구소의 최고경영자(CEO) 겸 연구소장을 맡을 예정이다.

2020년 444억달러 수준의 세계 로봇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2%를 기록하며 1772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단산 안 내만을 맡았던 서비스 로봇이 개인 비서용 로봇으로 발전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돼 AI 기술 역량 확보가 그룹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이에 따라 로봇 AI 연구소는 차세대 로봇의 근간이 될 근간 기술 확보를 먼저 추진한다. 운동기능, 인지기능 등의 로봇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외부 수집한 데이터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로봇 제어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구소는 로봇 기술의 범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AI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AI 플랫폼을 판매하는 자체 수익화 모델도

구축을 추진한다.

이밖에 로봇 AI 연구소는 우수 연구 인력 유치 등을 위해 다양한 산학연 주체들과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SDV(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개발 체계로의 조기 전환 등을 목표로 그룹 소프트웨어 역량 개발을 주도할 글로벌 SW 센터도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중인 가운데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주행 성능을 비롯해 기능, 품질을 규정한다는 SDV는 모빌리티 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SW 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포트투닷(42dot)도 인수하기로 했다.

포트투닷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해 온 스타트업으로,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SW 센터를 구성점 삼아 그룹 내 소프트웨어 역량을 신속하게 결합해 SDV 개발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ESG성과·목표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금호타이어는 ESG 경영성과와 목표를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CEO 메시지를 비롯한 주요경영진 인터뷰를 수록해 ESG경영에 대한 의지와 임직원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을 담았으며, 2021년 주요 ESG경영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금호타이어의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도 수록했다. 2045 탄소중립 목표와 로드맵을 공개하고,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요인, 잠재적 재무영향을 분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7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에 가입했으며, 영상 1.5도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목표 및 실행방안을 2년 이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금호타이어의 이번 보고서는 인터랙티브 기능을 통해 독자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했으며, 지속가능성 회계기준(SASB),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GRI 스탠다드 등 ESG 국제 표준에 따라 작성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기업의 존재 이유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과 더불어 환경 보존, 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의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금호타이어 홈페이지(https://www.kumhotire.com)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2023 스타리아' 출시

현대차는 상품 경쟁력을 높인 MPV(다목적 차량) 모델 '2023 스타리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2023 스타리아는 연식 변경 모델로, 주행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술을 새롭게 적용하고 트림별 사양을 강화해 상품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그룹 최초로 '횡풍안정제어'(Crosswind Stability Control) 신기술을 스타리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한다.

횡풍안정제어 기술은 차체의 측면으로 강한 횡풍이 불 때, 횡풍발생 방향의 전후면 바퀴를 자동제어 하는 방식으로 차량의 횡거동을 억제하고 회전 성능 및 접지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또 스타리아 카고(3·5인승), 투어러(9·11인승)의 모던 트림에는 자외선 차단유리, 라운지 모던 전 트림에는 사크림 안테나를 기본화했다.

이와 함께 투어러 및 라운지 모델은탑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라기지 넷트 및 후크를 개선했으며, 라운지 7인승 모델은 2열 시트의 착좌감을 더욱 강화했다.

현대차는 모빌리티 사업자 전용 '모빌리티 9'에 이어 신규 트림 7인승 '모빌리티7'을 추가했다. '모빌리티7'은 9인승 대비 2열 탑승객의 편의를 한층 고려한 모델로, 2열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가 기본 적용되고 듀얼 와이드 선루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모빌리티7'에는 ▲천연가죽 시트 ▲2열 열선 및 통풍 시트 ▲동승석 4way 전동시트 ▲동승석 워크인 다바이스가 기본 적용된다.

2023 스타리아는 ▲멀티행거 ▲트레일러 패키지와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어린아이드헤드레스트 ▲라기지 파티션 테이블(4분기 출시 예정) 등 편의-레저 전용 개인화 용품을 추가했다.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2806만~4209만원 선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넓은 공간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스타리아가 상품성을 한층 더 강화해 2023 스타리아로 돌아왔다"며 "MPV로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세련된 감각적 이미지로 재탄생... '경차 시장 주도할 것'

경차 모델 레이가 5년 만에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다.

기아는 다음달 초 출시를 앞둔 더 뉴 레이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기아 레이'(The new Kia Ray)의 디자인을 최근 공개했다.

더 뉴 기아 레이에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의 네 가지 속성 중 하나인 '이유 있는 즐거움'(Joy for Reason)에서 영감을 받아 더욱 세련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재탄생했다.

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면을 깔끔하게 처리한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를 수평으로 길게 배치해 확장된 '타이거 페이스'를 구현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측면부는 다양한 선이 조화를 이루는 기하학적 조형의 15인치 알로이 휠로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후면부는 입체감이 느껴지는 차체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리어 콤비램프를 적용했다. 리어 콤비램프 가장자리에 위치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은 차체를 시각적으로 확장해준다.

또 비노출형 테일 게이트 손잡이를 적용해 깨끗한 인상을 부여했으며 강인한 느낌을 주는 리어 범퍼 디자인으로 전면부와 통일감을 연출했다.

실내는 신규 4.2인치 LCD 클러스터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모던한 이미지를 더하는 '라이트 그레이 인테리얼'을 추가했다.

기아 관계자는 "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더 뉴 기아 레이에는 경차 시장을 새롭게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초 출시 시점에 맞춰 더 뉴 기아 레이의 경쟁력 있는 상품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